

허균의 중국 서적 입수와 역사적 의미

곽미선*

— <차 례> —

1. 들어가는 말
2. 허균의 중국 서적 입수의 배경과 한중 지식인의 시각
3. 허균의 중국 서적 입수의 역사적 의미
4. 나오는 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허균의 중국 서적을 입수한 배경과 경로에 대해 살펴본 후, 중국 서적 입수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고찰했다. 허균이 중국 서적을 입수할 수 있었던 배경적 요소로 조선 사대부들의 서적에 대한 끈질긴 애착과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조공사행에 주목하였고, 허균의 중국 서적의 입수경로는 조선에 파견되어온 중국 사신과의 교류를 통한 입수·중국사행을 통한 입수·역관과 표류인을 통한 입수 등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입수 사실을 확인하였다. 허균의 중국 서적 입수 행위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허균이 입수한 중국의 서적이 허균의 사상과 당대 조선 문단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허균의 중국 서적에 대한 탐독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 결과 허균은 당대 유행했던 중국의 한 가지 문학유파에만 얽매이지 않고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허균이 전후칠자의 문학론과 양명좌파의 문학론에 골고루 관심을 보였던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허균은 중국 서적의 영향을 받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갔던 선각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606년 주지번과의 만남을 계기로 왕세정을 비롯한 전후칠자에 경도되어 있다가 1614년 천추사행을 계기로 이탁을 비롯한 양명좌파에 경도되

* 중국 연변대학교 전임강사.

어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주제어 허균, 중국서적, 연행, 문예사상, 조선문단.

1. 들어가는 말

허균(1569~1618)은 사신 및 원접사 활동을 통해 중국문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당시 중국 문단의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였다. 그는 禮敎에만 얽매어 있던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졌으며 자기만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꺾박받는 하층민의 입장에서 학문관을 피력해나간 시대의 선각자이다. 조선시대에는 방달한 삶의 태도와 함께 道佛에의 경도로 인해, 패륜아적 모습으로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에 연구자들은 朱子學에 반기를 든 그의 사상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다. 허균은 일생동안 많은 중국의 서적들을 열독한 후 시문과 저술을 창작하여 주목을 요한다.

허균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최초로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작품의 주제, 형성배경, 텍스트 문제, 『수호전』과의 관련양상 및 작가의 한문학 세계를 고찰한 논문¹⁾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최근에 들어서서 중국문단과의 관련을 언급한 연구가 이루어져 연구의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허균이 중국 문인의 영향을 받은 내용²⁾에 대해서는 학계에 분분한 토

1) 허균의 한문학 세계를 조명한 논문은 대체로 “허균의 詩論과 文學論”, “허균과 당대 문인의 문학적 교류”, “허균의 한문 비평 양상” 등에 초점을 맞춰 그의 진보적인 면모를 고찰하였다.

2) 강명관(『허균과 명대문학』, 『민족문화사연구』 13, 민족문화사학회, 1998, 207~235쪽)은 허균이 복고파의 대표문인인 전후칠자 문학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풍기(『조선 중기 고문의 소품문적 성향과 허균의 척독』, 『민족문화연구』 35, 고려대

론이 일고 있다. 허균의 사상에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공존하고 있기에 실증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면밀히 고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국에서의 행적과 명나라 문인의 교류 및 중국 문단과의 접촉에 대해 논의³⁾한 부분도 주목되는데 허균이 중국 문학의 수용자라는 측면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허균은 명나라 문인과의 교류과정에서 사행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양한 서적을 입수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섭취하고 기존의 사상과 문예를 一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존 연구에서는 중국 서적 유통의 실질적인 담당자였던 허균의 면모에 주목한 연구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다. 허균이 중국 문단을 접촉하면서 중국의 서적을 탐독하였다는 사실을 소개한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 서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룬 것은 아니었다.

허균이 지은 『성소부부고』, 『을병조천록』⁴⁾과 『조선왕조실록』 자료, 그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393~418쪽)는 허균이 원평도 등 문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품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종호(『허균 문예사상의 좌파양명학 성향(1)(2)』, 『한국사상과 문화』 11~1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2002)는 명나라 말기의 이단사상을 대표하는 이탁오의 양명좌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박현규(『북경에서의 허균의 족적 고찰』, 『동방한문학』 53권, 동방한문학회, 2012)는 허균의 중국에서의 足跡을 살피기 위하여 허균이 다녔던 장소를 지리와 역사적 입장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하였고, 안나미(『17세기 초 공안파 문인과 조선 문인의 교류 - 구탄파 허균, 이정귀의 관련양상』, 『한문학보』 20권, 우리한문학회, 2009)는 조선 문인과 명 공안파 문인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좋은 사례로 허균, 이정귀와 구탄파의 관계를 주목하면서 17세기 초 한중 문학교류의 일단을 살펴보았으며, 노경희(『허균의 중국 문단과의 접촉과 시선집 편찬 연구』, 『한국한시연구』 14권, 한국한시학회, 2006)는 허균의 중국문학의 수용과 조선문학에 대한 관심이 일정한 관련을 지닌다는 시각에서 그의 중국 문단과의 접촉 과정, 중국 문학에 대한 독자적 이해 방식을 살펴보았다.
- 4) 『을병조천록』은 허균이 1615년 동지 겸 진주사행(冬至兼陳奏使行)의 부사(副使)로 압록강을 건너 중국을 다녀오면서 지은 382수로 이루어진 허균의 한문 기행시집으로, 이 작품을 통하여 허균의 호가 교산(蛟山) 외에 “촉재주인(燭齋主人)”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리고 김종청의 『조천록』⁵⁾등 텍스트에는 허균의 중국 서적 입수에 관련된 자료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본 연구는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해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허균의 중국 서적 유입의 경위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허균이 입수하였던 중국의 서적이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시각 하에, 중국의 서적이 허균의 사상과 당대 조선 문단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궁극적으로 허균이 중국문학이라는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해나갔는가 하는 영향 연구의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허균의 중국 서적 입수의 배경과 한중 지식인의 시각

1) 중국 서적 입수의 배경과 경로

허균이 중국 서적을 입수할 수 있었던 배경적 요소 가운데 우선 주목되는 부분은 서적에 대한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끈질긴 애착[內因]을 들 수 있다. 조선후기 특히 17세기 중국의 서적 수입에 대한 사대부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중국에 간 사신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서책을 구입하는 것이었다고 한 기존연구의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이는 “역관은 물론이고 사행원과 비공식 수행원들까지 북경의 서점가인 유리창의 서사를 전전하면서 구입하고자 하는 서목을 들고 다니며 값을 아끼지 않고 희귀본과 신간 서적을 싹쓸이 해 갔다”⁶⁾고 한 대목에서 구체화되어 제시된다.

『增補文獻備考』에는 조선인들의 책 구매 열기를 기록한 명나라 문인

5) 『조천록』에는 김종청이 지척거리에서 허균의 행적을 바라본 기록들을 남겨 놓아 허균 행적 조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6)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7년, 42쪽.

姜紹書의 일화가 소개되었는데 상당히 주목을 요하는 자료⁷⁾이다. 이 자료는 17세기에 사행원으로 중국에 갔다 온 조선인들이 필시는 물론이요 서적 구입에 정성을 쏟았던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많은 서적을 구해 갔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 없는 이본이 한국에는 있을 정도로 당시 중국에서의 서적 수입에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⁸⁾ 姜紹書가 『韻石齋筆談』에서 기술한 언급과 유사한 자료로 명나라 文人 陳繼儒⁹⁾가 남긴 기록을 들 수 있는데, 陳繼儒와 姜紹書의 기록을 대조해보면 몇 글자의 출입만 있을 뿐 내용은 거의 일치하다고 볼 수 있다. 陳繼儒(?-1680)와 姜紹書(1558-1639)는 중국 명나라 시기에 생존했던 문학가로, 두 사람의 생몰년으로부터 진계유가 강소서의 『韻石齋筆談』의 영향을 받아 조선인의 서적 구입열에 대해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중국 서적을 탐독했던 사대부들의 영향을 받아 허균은 중국 서적을 비롯한 독서에 열중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은 “만 권 책 속의 쯤벌레가 되고 싶다”¹⁰⁾고 토로했던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다음으로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중국 조공사행[外因]을 들 수 있다. 朝貢은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정기적으로 중국에 사절을 보내 예물을 바친 행위로, 조선에서도 해마다 중국으

7) 『補藝文考一 歷代書籍』, 『增補文獻備考』 卷242./『증보문헌비고』 3, 동국문화사, 1957년, 844쪽, 재인용.

“姜紹書『韻石齋筆談』曰：朝鮮國人最好書，凡使臣之來限五六十人。惑舊傳，惑新書，惑稗官小說，在彼所缺者，日出市中，各寫書目，逢人遍問，不惜重置購回。故彼國反有異書藏本也。”

8) 이민희, 앞의 책, 43~44쪽.

9) 정주동, 『古代小說論』, 형설출판사, 1978년, 44쪽, 재인용. “朝鮮人最好書，凡使臣入貢限五十人，或舊典新書稗官小說在彼所缺，日出市中，各寫書目，逢人遍問，不惜重直，購回。故彼國反有異書藏本。”

10) 許筠, 『惺所覆瓿稿』 卷6, 『湖墅藏書閣記』, “行將投紱東歸，爲蠹魚萬卷中，以了殘生。此書之藏，亦爲老僕娛老地，其可喜也已。”

로 사절단을 파견하여 문화교류를 추진하였다. 조선시대 이후 특히 명조의 폐쇄적인 대외 정책이 연장되면서 이른바 朝貢使行은 중국 문화 수용의 거의 유일한 창구가 되었고 중국 典籍의 간행 및 보급은 당시 중국 문화 이해와 수용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¹¹⁾ 후술하겠지만 허균은 여러 차례 사신으로 추천되어 명나라로 조공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 대량의 중국 서적을 입수할 수 있었다. 또 여러 차례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던 중국 인사를 접대하였는데 1602년 고친준 등의 접대를 맡은 원접사 李廷龜의 “연소한 사람중에 海運判官 許筠은 시에 능할 뿐만 아니라, 性品도 총민하여 典故 및 중국의 사정에 자세하다”라는 평판과, 1606년 주지번 등을 접대한 원접사 柳根의 “허균은 시격은 높지 않지만 총명하고 박식하여 중국 사신을 접대함에는 이 사람보다 나은 자가 없다”¹²⁾라는 평가로부터 중국 사정에 안목이 높았던 허균의 면모와 문학적 실력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수차례에 걸친 사신활동은 허균에게 중국의 서적을 입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허균이 중국 서적을 입수할 수 있었던 경우¹³⁾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첫째는 원접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선에 파견되어 온 중국사신을 접대하면서 명나라 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입수했던 경우이고, 둘째는 三使의 신분으로 중국사행을 통해 입수한 경우이며 셋째는 역관과 표류인을 통하여 입수한 경우이다. 허균이 명나라로부터 서적을 입수한 구체적인 문헌자료는 그의 문집과 실록자료를 참조

11) 진해중,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1970, 107~109쪽, 재인용.

12) 『선조실록』 39년 8월 6일 기록. “許筠詩, 格不高, 然聰敏博覽, 待華使, 無愈此人.”

13) 조선 시기 중국 서적을 수입하는 데는 중국 쪽으로부터 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 조정에서 해외 제국에 서적을 하사하는 것이니, 양은 대단치 않으나 중화적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국의 대외정책의 산물로서 그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허균의 문집을 검토해보면 중국 조정으로부터 하사받은 기록은 없다.

해 볼 수 있다.

우선 조선에 온 중국 사신과의 교류를 통한 입수이다. 허균은 여러 차례 원접사¹⁴⁾가 되어 조선에 온 명나라 사신들을 접대했다. 1606년 주지번의 조선사행은 한증문학교류사에서 획기적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이때 주지번은 여러 종의 문예 출판물을 가져와 조선에 전하면서 명나라 문단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선 문단에 소개하였다. 허균은 1606년 정사 주지번으로부터 『형산석각첩』, 『세설산보』, 『시준』, 『고척독』, 『서일전』, 『玉壺氷』, 『臥遊錄』 등을 선물받았고 부사 梁有年에게서 『태평광기』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병오기행』 3월 28일조¹⁵⁾와 4월 5일조¹⁶⁾ 및 1610년에 초판본으로 엮었던 『閑情錄凡例』¹⁷⁾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4) 1598년 찬획주사 徐中素 및 그를 따라온 참군 吳明濟와 교류하였고, 1602년 한림시강 顧天峻이 중국 사신으로 오자 원접사 이정구의 천거로 그의 종사관이 되어 중국 사신 접대하였다. 1606년 한림수찬 朱之蕃과 刑科都給事 梁有年이 사신으로 파견되어 조선에 오자 義興衛大護軍의 직을 제수 받아 원접사 柳根과 함께 이들을 접대하면서 『병오기행』을 남겼고, 1609년 원접사 李商毅의 추천으로 종사관이 되어 중국 사신 熊化와 劉用·徐明을 접대하면서 『기유서행기』를 남겼다.

15) 허균, 『성소부부고』 卷18, 『丙午紀行』 3월 28일 기록. “上使曰. 否否. 此子生中國. 亦當久在承明之廬. 金馬之門. 非獲罪則何以翱翔郎署外郡也. 因出世說刪補, 詩萬, 古尺牘等書以給. 又招養吾怡叔慰存之. 問其科第履歷. 副使又招見. 慰問辛苦. 以衡山石刻帖給之.”

16) 허균, 『성소부부고』 卷18, 『丙午紀行』 4월 5일 기록. “初五日. 少留回瀾石上. 中火于金郊. 入松京. 夕. 書本國人詩自孤雲以下百二十四人詩八百三十篇爲四卷. 粧廣作兩件. 呈于兩使. 上使給綠花段一疋, 息香千枝. 副使給藍花紗一端, 太平廣記一部.”

17) 허균, 『성소부부고』, 『閑情錄凡例』, “내가 경술년(1610)에 병으로 세간사(世間事)를 사절(謝絶)하고 문을 닫고 객(客)을 만나지 않아 긴 해를 보낼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보파리 속에서 마침 책 몇 권을 들춰내었는데, 바로 주난우 태사(太史)가 준 서일전(棲逸傳)·《옥호빙(玉壺氷)》·《와유록(臥遊錄)》 3종이었다. 이것을 반복하여 펴 보면서 곧바로 이 세 책을 4문(門)으로 유집(類集)하여 《한정록(閑情錄)》이라 이름 하였다.”

서적입수와 관련한 허균의 사신활동으로는 1609년 雄化와 劉用, 서명을 접대한 일에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사신의 수행원으로 따라온 徐明은 자신의 생일선물에 대한 답례품으로 허균에게 『백낙천집』을 선물하였는데 이는 『己酉西行記』 5월 26일(조18)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명은 문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조선의 시문에 관심을 가지고 예전에 사신으로 갔던 安南과 비교하여 安南의 시가 천박한데 비해 조선의 시는 돈후하다고 칭찬¹⁹⁾하면서 조선문화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서명과의 교류를 계기로 허균은 조선시에 대한 긍지감을 가지고 중국의 문인들에게 조선시 문집을 널리 전파시킬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으로 중국사행을 통한 입수이다. 허균은 정사, 부사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명나라의 문인, 학자들과 교류하였는데, 네 차례나 연행 사신²⁰⁾이 되어 명나라를 다녀오면서 異文化를 체험하고 다방면의 문화를 접촉하고자 노력하였다. 명나라 조정은 외교 정책에 있어 청나라에 비해 폐쇄적인 태도를 보여 朝貢사행단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사행원의 사적인 무역이나 외출을 금지하였기에 조선문인들은 비교적 제한된 범위내에서 중국문인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조선인의 서적 수입은 유리창과 관련이 있는바

18) 허균, 『성소부부고』, 『己酉西行記』 5월 26일 기록. “廿六日。以劉使生辰，上遣問安使呂裕吉，致明蔘百斤銀一千兩，雜物稱是。劉使甚喜，夕徐相公至鄙寓，贈余《白樂天集》。”

19) 허균, 『성소부부고』, 『己酉西行記』 6월 28일 기록. “徐又言曾從黃太史輝使安南，其國亦解文，爲詩者甚多。率佻淺不及貴國，詩之敦厚典麗，且人心生籐，到處生梗。使臣輒陳兵自衛，彼之儀相，亦皆嚴警以待。風土極惡，中瘴輒嘔洩，地多蟲蛇，亦不如貴國之比諸夏也。且其饋遺皆金珠·犀香·翠羽·明珀等物。貴國無寶，而人才是寶也。”

20) 1594년 집반사 윤국형의 종사관이 되어 咨文齋進官의 자격으로 4달간 요동에 다녀왔고, 1597년 사신으로 북경에 다녀오면서 『정유조천록』을 남겼다. 1614년 천주사에 제수되어, 1615년 冬至兼陳奏副使에 제수되어 진주사 閔馨男과 함께 중국 사행을 다녀오면서 『을병조천록』을 남겼다.

18세기에 와서 거대한 유리창 서적시장²¹⁾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허균이 중국 사행을 다녀왔던 17세기 초반에는 서적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균이 1614년과 1615년에 중국사행을 가서 4천여권에 달하는 중국 서적을 다량 구입해 온 사실²²⁾은 놀랍다.

중국 사행을 통한 허균의 서책 구입이 철저히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임진왜란으로 대량 산실된 서적들의 충당을 위한 국가적 요구가 개입된 것인지가 분명치는 않으나 그 규모는 상당한 것이었다. 『을병조천록』에 서적과 관련된 『偶閱陸儼山集, 有人持元史至用二十陌, 得之. 詩云: ‘囊中恰減三旬用, 架上新添一束畫. 但使典墳常在手, 未嫌茅舍食無魚.’ 讀之深協鄙願古人實獲我心遂步韻和之云,』라는 흥미로운 시 한수²³⁾가 실려 있어 주목을 요한다. 시에서는 국가의 파견으로 해마다 朝天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지만 고인들의 서적을 살 수 있어 위로를 느끼며 독서삼매를 즐기는 모습을 읊었다. 이러한 발상은 후반부에 이르러 임진왜란 후 분실된 서적을 구할 수 있어서 성취감이 이룩한 모습으로 이어진다.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책들을 중국에서 입수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서책구입이 개인적인 애호가 강하였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역관 및 표류인을 통한 입수이다. 역관을 시켜 얻은 서적이

21) 현재 전하고 있는 연행 관련 기록 중에서 1732년에 연행길에 올랐던 이의현의 壬子燕行雜識에 처음으로 유리창이 등장하고 마지막 기록은 1894년 연행길에 올랐던 김동호의 甲午燕行錄이다.

22) 허균, 『惺所覆韻稿』附錄, 『閑情錄凡例』. “余嘗恨家乏史籍, 所載甚簡略, 切欲添入遺事, 勒爲全書爲計久矣. 倅僮未暇, 甲寅乙卯兩年, 因事再赴帝都, 斥家貨購得書籍幾四千餘卷.”

23) 최강현 역, 『국역 을병조천록』, 국립중앙도서관, 2005년 12월. “連歲赴朝雖太苦, 只輸多得古人書. 傾囊罄篋人休笑, 端欲將身作蠹魚. 家山兵後無墳籍, 欲得人間未見書. 到此購藏幾萬卷, 不妨燈下辨蠹魚.”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허균의 독서수요를 만족시켜 주었던 것 같다. 역관들은 사신일행을 따라 중국에 머무는 동안 명나라 문인들과 교류하거나 서반에게 의뢰하여 중국에서 간행되었던 다양한 서적을 접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연행사신과 역관들에 의하여 중국에서 유행하던 서적들이 조선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었던 것이다. 허균의 문집에는 허균이 중국으로 떠난 역관에게 책을 부탁한 기록²⁴⁾이 전하여 주목을 요한다. 이 기록을 보건데 허균이 명나라 문인 何元郎(何良俊의 자)의 서적에 상당히 심취했던 것 같다. 명나라로 가는 역관에게까지 시켜서 구입해보고 싶을 정도였으면 그 독서 열기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허균이 하원량의 『四友叢說』을 읽고 평하기를 “통쾌하기가 마치 구름을 헤치고 하늘을 보는 것과 같다.”²⁵⁾고 하였다. 하원량의 서적에 관심을 기울이고 독서한 흔적은 허균이 저술한 『한정록』에 잘 드러나 있다.

허균이 표류인을 통하여 서적을 유입한 사실은 김종청의 『조천록』에 언급된다. 김종청의 『조천록』 10월 26일²⁶⁾조에는 허균이 표류인 方初陽과 河三才로부터 서책을 증정받은 기록이 전한다. 방초양이 허균에게 증정한 『歷代名臣奏議』는 1백여 책이나 되는 거질인데, 당시 책값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조천록』 11월 3일조에 허균을 비롯한 천추사 일행이 귀국하고자 연경을 떠날 때 표류인 방초양, 하삼재 등 5인이 찾아와 감사의

24) 허균, 『惺所覆韻稿』 卷13, 『四友叢說跋』, “余少日讀何氏語林, 卽知中國有何元郎氏, 欲觀其頃全集而不可得. 嘗於顧氏詩餘, 見元郎之序文, 詳縵古雅, 信是名家. 又於諸尺牘中, 略觀其一二小文, 心竊艷之不置. 因朝譯, 求所謂《東海集》則不能購, 購其《四友叢說》者八卷而來. 余竊觀之, 則古六經子史暨國朝掌故及裨官小乘所筭. 旁通於釋道詞曲家, 靡不博綜而該錄之, 其所見所論贊, 具出人意料, 可喜可驚可奇, 眞異書也.”

25) 허균, 『惺所覆韻稿』 卷13. “快如挾雲而觀天也.”

26) 김종청, 『조천록』 10월 26일조. “漂人方初陽河三才來見. 以『歷代名臣奏議』百餘冊贈使.”

표시로 변려문을 수록한 『四六』과 비밀히 소장하고 있던 전적인 『秘笈』 및 袖珍本 『五經』 등의 서책을 나누어주었다고 하는 기록²⁷⁾이 있는데 상당히 흥미롭다. 허균이 끈질긴 독서광이었음은 표류인들도 아는 사실이었던 것 같다. 이는 감사의 선물로 서책을 기증한 사실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2) 서적 유통에 대한 한중 지식인의 시각

허균의 서적 유통에 대한 조선 지식인의 평가를 살피기 위하여, 논의의 시각을 확장시켜 명나라 문인들과의 교류가운데서 조선의 시문을 중국에 전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측면도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 하면 허균은 중국 사신들과의 교류가운데서 단순히 중국의 서적만 선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답례로 조선의 시문집을 증여하였기 때문이다. 한국고전시화에 수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당대 조선 지식인의 시각을 분석해본다.

“전겸익의 『皇明列朝詩集』에는 우리나라의 시를 많이 수록하였는데 대가들의 시가 많이 누락되었다. 이를테면 박은·노수신의 작품을 모두 수록하지 않고 허씨의 시를 가장 많이 수록하였는데 이는 바로 주지번이 조선에 왔을 때 허균이 기록하여 준 것이다. 허균이 주지번을 만났을 때 주지번은 허균으로부터 조선의 시를 구해보고자 하였다. 허균이 외위 전해준 것은 자기의 뜻에 부합되는 綺羅油膩한 작품으로, 여러 문인들의 淸俊雄放한 작품이 중국에 전해지지 않게 되었는데 회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다.”²⁸⁾

27) 김중경, 『조천록』 11월 3일조. “漂人河三才方初陽顧起元周秀林正茂五人. 盛辦酒饌, … 又以龍眼荔枝各二盤, 及『四六秘笈』『五經』袖珍諸書分授, 終始稱謝”

28) 申叻, 『屯庵詩話』, “錢牧齋《皇明列朝詩集》錄東方詩頗多, 而本朝大家大半見漏, 如挹翠、穌齋皆不得入錄. 錄許氏詩最多, 此則朱蘭嶼頒詔時, 許筠錄付而得與者也. 筠於其時最見知蘭嶼, 蘭嶼亦曾求東詩於筠, 則此實一機會. 而筠之所誦傳, 率以與己相合者綺羅油膩之作, 而使諸公淸俊雄放之辭不達於中華, 其責有不

위의 자료는 申昉(1685~1736)이 지었던 『屯庵詩話』에 수록된 내용이다. 申昉은 전경익의 『皇明列朝詩集』 텍스트에 조선에 음취헌을 비롯한 훌륭한 시인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난설헌의 시가 많이 수록된 사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申昉의 『屯庵詩話』가 간행된 이래 조선의 문인들은 申昉의 영향을 받아 申昉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詩話集을 편찬할 때 난설헌의 시를 지나치게 많이 수록하였던 허균의 행위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기록²⁹⁾은 佚名 편찬으로 된 『別本東人詩話』에서 확인할 수 있다. 『別本東人詩話』를 필사한 이가 “歲在癸亥夏四月下泮講魯齋書”이라고 밝혔는데 이 시화집은 1743년(癸亥)에 편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別本東人詩話』와 『屯庵詩話』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몇 글자의 글자 출입만 있을 뿐 申昉의 기록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허균은 1606년 주지번과의 교류 과정에 당시 사대부들의 편견과 달리 여성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허난설헌의 시를 기록하여 책자로 묶어 주었다. 주지번이 중국으로 가져간 『난설헌집』은 당시 중국문단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어 중국 지식인들의 호기심을 자아내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1609년 조선에 온 사신들이 국내에서 주지번에게 허균의 누이인 난설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설헌집』을 열심히 찾았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허균의 조선시문집 유포에 대해 중국 문인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조선시문을 찾아본 것과 달리 조선의 문인들은 왜 허균의 이와 같은 행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을까? 여성의 창작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 허균이

可逃者。”

29) 佚名, 『別本東人詩話』, “申昉《屯庵詩話》曰: 皇明《列朝詩集》錄東詩頗多, 而本朝大家如翠軒、蘇齋皆不得入, 錄蘭雪軒許氏詩最多, 此皆蓋朱天使頒詔時, 許筠之所錄付者也。筠於其時見知於蘭嶼, 求見東詩, 此實一機會。而筠之所錄, 率以與己相合者及綺羅粉黛之作, 而使諸公清俊雅放之辭不達於中華, 誠可慨也。”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선의 시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집안의 시문을 높이 평가하면서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문인들이 허균의 행위에 대해 중국 지식인들과 상반된 인식을 지녔던 것 같다.

허균은 1614년 천주 사행에서 구입한 『林居漫錄』 등의 책에 조선 왕조를 모욕하는 대목이 있음을 발견하고 중국 문헌의 곡필과 변무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를 원했는데 광해군으로부터 많은 신임을 얻었다. 광해군은 허균이 찾아온 이 서책들을 친람하겠다고 했고,³⁰⁾ 얼마 후 이 사건과 문헌 구입으로 공을 세웠다며 가자하였다.³¹⁾ 한국고전시화 자료를 검토해보면 허균이 중국에서 입수한 『林居漫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책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밝혀놓았다.

“허균이 나라를 해칠 마음을 품고 먼저 공을 세워, 나라의 권세를 휘어잡으려고 언제나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어 왕실이 전복되도록 했다. 이때에 북경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中原에 《林居漫錄》이란 책이 있는데, 王室의 宗系가 잘못 기록되어 있어 기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했다. 광해가 듣고 놀라서 의혹에 싸여 즉시 역적 허균으로 하여금 가서 고치도록 하였다. 역적 허균은 금은 보화를 많이 신고 갔다 온 것처럼 하고 저쪽과 이쪽 임금이 사용하는 문서에 도장을 위조하여 찍고 황제의 결정을 얻었다고 보고했다.”³²⁾

柳光翼의 『楓巖輯語』에 수록된 내용이다. 柳光翼은 허균을 역적이라

30) 『광해군일기』 7년 2월 4일조와 2월 6일조 참조. “허균(許筠)이 찾아온 《학해임거만록(學海林居漫錄)》을 들이라”. “허균(許筠)이 구입해 온 책 4권을 들이라.”

31) 『광해군일기』 7년 6월 5일 기록. “上年千秋使許筠, 非但多貿書冊, 至於辨誣事, 多般聞見馳啓, 且世宗皇帝御製箴、御筆、購印以來, 此眞寶墨也, 加資. 書狀官金中淸, 亦不無周旋相議之事, 陞敘堂上, 譯官宋業男加資.”

32) 柳光翼, 『楓巖輯語』, “許筠常幻作無據之言, 每令朝野顛倒, 丁巳回自京師曰: ‘中國有《林居漫錄》, 宗系之誣如旧不改.’ 光海大驚, 卽令筠委件申下, 筠多載珍賄以往, 僞署彼此御符文籍定奪回報.”

고 칭하면서 『임거만록』과 관련하여 허균이 조정에 보고한 내용이 근거 없는 말이라고 비판하였다. 허균이 입수했던 『林居漫錄』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再考해야 하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1615년 허균에게 위탁하여 사행을 통해 이를 교정할 것을 중국 조정에 주청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1615년의 사행은 일 자체가 서적과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허균은 은 수만 냥에 이르는 돈을 지원 받아 중국 시장에 떠돌던 상당수의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지만,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 도가 지나쳐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책자를 가져오면서 조선 조정에 일대 환란을 일으키게 되어 파멸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다.

3. 허균의 중국 서적 입수의 역사적 의미

사행이 중국 서적 입수의 거의 유일한 통로였던 시기 본래부터 서적에 관심이 많았던 허균은 서적 구입에 많은 열정을 보여주었다. 허균은 중국사신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중국 문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서책을 선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사행 과정에도 많은 중국의 신간 서적을 입수하였다. 그렇다면 허균이 이렇게 많은 중국의 서적을 입수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서적 입수 행위에 담긴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 본고에서는 허균이 입수한 중국의 서적이 허균의 사상과 당대 조선 문단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중국 서적이 허균의 사상에 미친 영향

허균은 중국문학에 대한 열렬한 관심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중국 서적을 입수하였다. 이렇게 입수한 중국 서적을 통하여 허균이 중국의

어느 문인의 사상에 심취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허균의 문학적 사유와 문예 사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중국 서적의 입수를 계기로 허균의 사상과 문예 취향은 전대와는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면에는 독서공간의 확대와 독서체험의 변화가 수반되었을 것이다. 허균의 사상을 외적 영향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중국의 서적이 그의 사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은 분명하다.

우선, 허균은 하량준의 서적에 관심을 가지고 널리 탐독하였다. 허균이 중국서적에 대한 관심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성소부부고』 부록에 실린 『한정록』에 인용된 서목들을 정리하여 빈도수를 통계³³⁾해 보았는데 이러한 통계를 통하여 허균이 누구의 서적을 더 관심 있게 보았는가를 추출할 수 있다. 통계자료가운데서 허균이 하량준의 문장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고, 『하씨어림』, 『세설신어』 등 명대 문인의 작품에 관심이 많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허균은 젊었을 때 이미 『何氏語林』을 읽고 그의 전집을 구해 읽어 보고자 하면서 그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 기록³⁴⁾이 있어 흥미롭다. 『何氏語林』은 『세설신어』의 체재를 답습하여 구성된 志人類 필기소설이다. 이 시기 허균이 읽었던 『何氏語林』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입수하였는지는 실증자료의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 책이 1618년에 편찬한 『한정록』에 92회나 인용될 정도를 미루어 본다면, 젊어서부터 한정록을 편찬하였던 만년까지 허균이 하량준의 문학세계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3) 인용한 빈도수가 많은 부분을 뽑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何氏語林(何良俊)』 92회, 『四友齋叢說(何良俊)』 9회, 『世說新語(劉義慶)』 51회, 『明世說新語(李紹文)』 25회, 『世說新語補(王世貞)』 8회, 『眉公秘笈(陳繼儒)』 40회, 『巖棲幽事(陳繼儒)』 25회, 『眉公十部集(陳繼儒)』 15회, 『玉壺冰(都穆)』 18회, 『知非錄』 42회.

34) 허균, 『惺所覆韻稿』 卷13, 『四友叢說跋』, “余少日讀《何氏語林》, 卽知中國有何元郎氏, 欲觀其全集而不可得.”

다음으로, 전후칠자의 문학론에 대한 허균의 인식과 수용을 들어본다. 중국의 고전적 저작이나 실용서 이외에 의고문과가 득세했던 당대 문인 지식인층의 저작들은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이르러 조선 문인들의 독서 범위에 들어오게 되었다. 전후칠자의 저작들도 바로 이 시기 본격적으로 조선에 수입되기 시작하였다. 문집 『성소부부고』의 기록을 근거로 고찰하면 허균이 명나라 전후칠자의 문집을 두루 읽고 독후감을 상당히 많이 남겼으며 명나라의 문장을 모범으로 이용하는데 앞장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허균은 1606년 주지번과의 만남을 계기로 왕세정을 비롯한 전후칠자의 문학을 열독하던 태도를 보여주었는데, 주지번의 영향을 계기로 이러한 독서경향이 형성되었던 것 같다.

허균이 1606년 3월 28일 주지번에게 『세설산보』를 선물 받은 데 이어, 4월 9일 만남에서 주지번은 왕세정을 직접 만나 학문과 문장의 공부과정을 물어보았던 과정³⁵⁾을 허균에게 들려주면서 왕세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왕세정이 편찬한 책을 선물하는 등 전후칠자 문학론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허균은 1606년과 그 이듬해에 걸쳐 이몽양, 하경명, 이반룡의 문집과 왕세정의 문집인 『弇州四部藁』를 읽은 후 이몽양, 하경명, 이반룡, 왕세정의 시를 뽑아 『明四家詩選』을 엮었는데 서문에서 허균은 왕세정을 項羽, 司馬相如, 司馬遷에 비기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³⁶⁾ 이외에도 허

35) 허균, 『惺所覆瓿稿』 卷18, 「병오기행」, “余因問曾見弇州否? 上使曰: 癸巳春, 往太倉請益於弇州公, 時以南大司寇致仕, 貌不中人, 眼炯如花, 園築考古, 博古等堂. 聚詩社友門徒賦詩, 飲酒終日, 日飲五六斗不醉. 人有求詩文, 令侍婢吹彈而謳, 伸紙輒成, 問學問文章功程. 則曰: 吾輩少日妄喜王·陸之新音, 到老看之, 考亭訓四子爲第一義, 可自求於此矣. 章文則人人不可爲李于鱗, 先秦西京文, 漢魏古詩, 盛唐近體, 雖不可不讀, 而蘇長公詩文, 最切近易學也, 吾亦以自傳蘇詩爲法矣.”

36) 허균, 『惺所覆瓿稿』 卷4, 「明四家詩選序」, “明人作詩者, 輒曰吾盛唐也. (중략) 弘正之間, 光嶽氣全, 俊民蔚興. 時則北地李夢陽立幟, 信陽何景明嗣筏, 鏗鏘炳烺, 殆與李唐之盛, 爭其銖累, 詎不趨哉. 流風相尚, 天下靡然, 遂有體無完膚之謂, 是模

균은 1611년 무렵에 꿈속에서 왕세정에게 시를 지도 받았던 『續夢詩』와 왕세정의 『靜姬賦』를 본떠서 『續靜姬賦』³⁷⁾ 등 작품을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허균은 최소한 『성소부부고』를 엮은 1611년 이전에 왕세정의 『弇州續藁』까지 접한 상태³⁸⁾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번과의 교류를 계기로 허균은 왕세정의 저작을 본격적으로 읽으며 왕세정을 비롯한 전후칠자의 문학론을 탐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지번이 허균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허균이 주지번을 만나기 전인 1593년 『학산초담』을 엮은 시기에는 왕세정 등 전후칠자를 비롯한 명대문학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³⁹⁾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허균 1606년 주지번과의 교류 이후 왕세정을 비롯한 전후칠자의 문학론에 새롭게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는 중국 서적 입수와 탐독을 통한 문학관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시기 허균이 흥미를 가지고 열독했던 명대 문단의 서적⁴⁰⁾들을 살펴보면 『邊華泉集』, 『謝山人集』, 『王奉常集』, 『徐天目集』 등과 왕세정이 편찬한 『열선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列仙贊”⁴¹⁾에서 진본을 얻어본 경위 및 鈔刻

擬者之過也。奚病於作者，歷下生李攀龍以卓犖踴厲之才，鶴起而振之，吳郡王世貞遂繼以代興，岳峙中原，傲倪千古。直與漢兩司馬爭衡於百代之下，吁亦異哉！”

37) 허균, 『續靜姬賦』, 『惺所覆瓿稿』 卷3.

38) 정길수, 『허균 문학론의 모순과 일관 - 왕세정 혹은 의고문과 문학론과의 연관』, 『한국한문학연구』 51권, 한국한문학회, 2013, 267~300쪽.

39) 허균, 『鶴山樵談』, “王元美輩以明人文章比西漢，以獻吉比太史公，于鱗則比子雲，自托於相如，其自誇太甚。” 『학산초담』에는 108개의 기사가 실려 있는데 67회에서 71화까지는 명대 문인들과 관련한 기사를 서술하고 있다.

40) 허균의 『惺所覆瓿稿』 卷二, 『病閑雜述』 조목에는 “讀邊華泉集”, “讀謝山人集”, “讀王奉常集”, “讀徐天目吳甌甄二集”이 수록되어 있다.

41) 허균, 『惺所覆瓿稿』 卷14, 『列仙贊』, “弇州王元美所輯列仙傳，余從獻甫許渴見真本，其模寫鈔刻之工，極其精妙，眞希代之玩也。余既卒業，倩工揀其尤異者，移于絹素，以彩飾之，係以贊辭，時觀之以釋懷仙之念云。”

의 숨씨가 정묘한 것에 대해 세상에 보기 드문 보배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채로운 것을 취하여 비단에 옮겨 채색으로 꾸며 찬사를 붙인 후 신선을 그리는 마음을 달래고 싶다고 피력하였다. 이러한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허균의 관심사가 왕세정을 비롯한 명대 전후칠자의 문집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1611년 『성소부부고』 편찬 이후 허균이 구체적인 문학론을 피력한 글들이 별로 전하지 않기에 이 시기 이후의 허균 문학관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 허균의 문학적 사유를 이해하기 위해 문집에 나타나는 기록에 의거해 단선적으로 규정하기보다,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허균에 의해 편찬되었던 시문선집이나 독서체험을 기록한 텍스트를 통해서도 문학적 사유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허균은 중국 서적을 입수한 후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탐독하였으며 한 문인 또는 한 유파의 문학론만을 일방적으로 추종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을 취사선택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양명좌파의 문학론이 허균의 사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후세 문인들의 평가에 의하면 허균은 노장이나 불교에 심취하여 유교적 질서를 거부하고 인간의 본성을 중시하는 정욕공정 사상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²⁾ 양명학을 개창한 王守仁은 이몽양이 제창한 복고풍을 따르는 경향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전칠자의 굴레에 속박되지 않으면서 기존의 사조를 버리고 자신만의 정감을 표출하여 자연스러운 시풍을 이룩하였다. 왕양명은 중국에서 명청팔대가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

42) 이종호(『허균 문예사상의 좌파양명학 성향(1)』, 『한국사상과 문화』 1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는 이탁오와 원평도의 문예사상이 허균의 사상과 일치하다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허균의 삶과 문예사상을 중심으로 허균이 보인 좌파양명학 성향을 알아보고 허균과 이지 두 사람이 지닌 사상을 비교함으로써 16세기 동아시아를 추동한 양명사상의 작용과 의의를 논의하였다.

로 독특한 산문경계를 성취한 문인이었다. 허균은 문장가로서 이룩한 왕양명의 명성에 경도되어 왕양명을 높이 추종했던 것 같은데, “근세에 양명과 형천의 문장은 모두 내전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기에 마음으로 남몰래 이를 사모하였다”⁴³⁾라 평하거나 명나라 10대 문장가의 하나로 왕양명을 꼽았던⁴⁴⁾ 대목에서 입증할 수 있다.

역사적 변동기를 살아가면서 문예취향이 남달랐던 허균은 중국에서 도래한 양명학적 문학이론에 경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허균이 유배지 함열에서 1611년에 편찬한 『성소부부고』에 이탁오 등의 양명좌파와 원광도 등의 공안파 저작을 골고루 읽은 흔적⁴⁵⁾을 남긴 것으로 보아 양명학과 관련된 서적을 접한 시기가 1611년 이전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탁오 등 양명좌파 문인에게 본격적으로 경도된 계기는 북경 사신행차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 같다. 천추사행시기 허균은禁書에 해당하는 서책을 입수하였는데 이 금서 중에는 이탁오를 비롯한 명말의 급진적인 문인의 저술이나 정통유학에 대한 비판서가 포함된다. 허균은 이지의 『藏書』와 『焚書』를 접하고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장서』는 1599년에 이탁오의 친구 焦竑에 의해 남경에서 각판되었다. 1602년에 장문달이 이탁오를 탄핵하고 곧이어 풍기의 상소문이 이어지자 만력제는 이탁오를 체포하고 각종 저서물과 책판들을 소각했으며 서적 유통을 금지시켰다. 허균이 『장서』를 구입했을 시기가 1614년 8월인데, 이 시기에 『장서』책판은 이미 소실되고 유통 금서로 지정되어 있었다.⁴⁶⁾

43) 허균, 『惺所覆瓿稿』卷14, 『送李懶翁환忻恒山序』, “近世陽明荊川之文, 皆因內典有所覺悟, 心竊艷之.”

44) 허균, 『鶴山樵談』, “明人以文鳴者十大家: 李崆峒獻吉、王陽明伯安、唐荊川應德、王祭酒允寧、王按察愼中、董潯陽玠、茅鹿門坤、李滄溟攀龍、王鳳洲世貞、汪南溟道昆。而崆峒專學西漢, 王、李則鉤章棘句, 欲軼先秦南溟華健、董、茅則平熟, 王愼中則富瞻。”

45) 허경진, 「녹과잡기를 통해 본 강남서적의 유입과 그 영향」, 『중국학논총』 29, 한국중국문화학회, 2010, 115쪽.

『장서』의 주요 내용은 공자의 시비를 달리 해석했고, 유교주의와 정통사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宋明의 성리학에 대해 맹렬히 비난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본다면 이탁오의 사고방식이 기존의 사고를 타파하는 진보적인 사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지식인들에게 쉽게 용납되지 않았다. 허균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탁오의 『분서』를 입수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1615년 사행 때 입수한 것 만은 분명하다. 1610년과 1618년 두 차례에 걸쳐 엮은 『한정록』에는 명말의 필기류와 소설류가 광범위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1610년 초판본 『한정록』에 이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1618년 재판본 『한정록』에 李氏焚書를 인용한 대목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1615년에 입수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허균은 이탁오의 『분서』를 즐겨 읽었는데, 읽고 난 후의 느낌을 『을병조천록』의 「讀李氏焚書」에서 극명하게 표출하였다. 총 3수로 된 이 시 가운데 제1수⁴⁷⁾는 주목을 요한다. 이탁오의 문장을 태워도 그 문장 속에 있는 도는 태워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했다. 이탁오는 불교와 도교의 취지가 유교의 취지와 본래 하나라는 三教歸儒說을 제창했는데,⁴⁸⁾ 이탁오의 영향을 받아 허균은 불교, 도교와 유교의 깨우침이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탁오와 허균은 34년이란 시기를 같이 살았던 동시대인으로 허균이 이탁오 생전에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탁오의 저작이나 사상에 대하여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허균의 일대기를 보면 유자의 삶과 행동을 하면서 불교와 도교와의 만남이 거리낌 없이 이루어졌는데 양명좌파 문인이었던 이탁오의 영향을 받아 1615년 이후 이와 같은 사유가 형성된

46) 박현규, 「천추 사행시기 허균의 문헌 관련 활동」, 『동방학지』 27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273쪽.

47) 허균, 『을병조천록』, 「讀李贄焚書」, “清朝焚却禿翁父, 其道猶存不盡焚. 彼釋此儒同一悟, 世間橫議自紛紛.”

48) 『續焚書』 권2, 「三教歸儒說」, “儒釋道之學, 一也. 以其初皆期於聞道也.”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 조선 문단의 분위기가 양명좌파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공안과 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지 않았기에 당대 여타 문인들에게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허균의 중국 독서가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그의 문학적 사유가 시기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는 일생동안 중국의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중국의 서적을 수집하였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에게 가장 맞는 것을 취사선택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하기에 그가 누구의 서적에 심취했는가를 해석할 때는 한쪽으로 편도된 경향을 주장하는 시각을 벗어나 다각도로 조명하여야 한다.

2) 중국 서적이 조선의 문단에 미친 영향

영상이나 인터넷 등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가 발전하기 이전인 고대중세시기에는 서적이 거의 유일한 문화 정보의 전달매체였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허균의 중국 서적 유통이 조선의 문단에 미친 영향은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화현상이다. 허균이 입수한 중국서적이 조선 문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선후기 장서문화의 형성에 기여한 측면, 허균이 관심을 가지고 입수한 만명의 小品이 조선후기 산문사의 흐름에 일으킨 역할 및 허균이 입수한 『소창청기』라는 명나라 서적이 허균 이후 조선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수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허균이 중국 사행시기 중국의 서적을 대량 구입했던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겨질 정도였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서적 구입이 이후 계속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 하면 임진왜란 이후 급박한 대륙 정세의 변동으로 연행이 어려워지고 또 서적 수입에 골몰할 한가한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서적 수입이 상당히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

다.⁴⁹⁾ 허균은 “오직 독서하는 것만을 기뻐하여 방 한 개를 치우고 만 권 서적을 꽂아 놓고 그 속에서 즐긴다면 옥에 갇히고 이리저리 쫓겨다녀도 다 낙원이다.”⁵⁰⁾고 언급할 정도로 책을 즐겨 읽으면서 수집하였다. 허균은 독서를 통해 성인과 광인의 구분된 바를 고찰하고 다스림과 어지러움이 말미암는 바를 생각하며 어지러이 한꺼번에 치닫는 백가들의 많은 이치를 모아서 하나로 꿰뚫어 보고자 하였다.⁵¹⁾ 허균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기 위하여 대량의 서적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까지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허균이 책을 公器로 인식하고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 자료실인 『湖墅藏書閣』을 설치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마침 사신으로 가게 되어, 그것으로써 六經·四子·『性理大全』·『左傳』·『國語』·『史記』·『文選』, 李白·杜甫·韓愈·歐陽脩의 문집, 四六·『通鑑』 등의 책을 燕市에서 구해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를 노새에 실어 그 고을 향교로 보냈다. 향교의 선비들은 의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서 사양하므로 나는 湖上의 별장에 나아가 누각 하나를 비우고 주장하고서, 고을의 여러 선비들이 만약 빌려 읽고자 하면 나아가 읽게 하고 도로 주장하여, 李公擇의 山房故事와 같이 하였으니, 이로써 柳侯의 학문을 일으키고 인재를 양성하려는 뜻을 거의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의관과 문필을 갖춘 선비로 하여금 줄지어 늘어섬이 옛날의 흥성하던 시절과 같이 된다면 나도 그 공을 함께 지닐 터이니, 또한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⁵²⁾

49) 강명관, 『조선 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민족문화사연구』 9권, 민족문화사학회, 1996, 174쪽.

50) 허균, 『惺所覆瓿稿』卷3, 『和陶元亮歸去來辭并引』, “唯喜讀書, 掃一室, 架萬卷, 而嬉於其中, 則累囚逐逐, 皆是樂國.”

51) 허균, 『惺所覆瓿稿』卷3, 『和陶元亮歸去來辭并引』, “稽聖狂之所分, 想治忽之攸關, 百家紛其並驚, 會衆致而一觀.”

52) 허균, 『惺所覆瓿稿』卷6, 『湖墅藏書閣記』, “因朝价之行, 購得六經四子性理左國·

위의 자료는 허균이 湖墅藏書閣을 설치하게 된 연유를 적은 記文이다. 湖墅藏書閣은 허균이 경포호수 옆 별장에 귀한 책을 보관한 조선시대 강릉의 최초 사설 도서관으로, 허균은 “과거에 급제한 후 藏書 1만 권을 뽑아서 공부하던 집이다 기증하고 그 곳을 李氏山房이라 명명”했던 이공택의 영향을 받아 湖墅藏書閣을 설치하였던 것 같다. 허균은 湖墅藏書閣을 설치하여 당시 지역 향교의 교생과 유림들에게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처럼 도서관이라는 공공시설이 없어 책을 빌려보기 상당히 어려웠다. 허균은 중국에서 서적을 입수한 이후 혼자만의 지식을 축적하기 위하여 책을 독서하거나 개인의 소유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장한 다양한 책들을 지역의 유림들과 함께 나누며 지식을 공유하고 사상을 함께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문필을 갖춘 선비들을 배양시켜 문예가 진작되기를 희망하였던 것 같다. 허균의 湖墅藏書閣 설치의 조선후기 장서가의 출현과 藏書문화 형성에 기여하였으리라 짐작된다.

허균은 만명의 척독소품에 대해 깊은 친밀감과 관심을 보여주었다. 1600년을 전후한 시기는 고문이 한 시기를 풍미하기 시작한 시기로, 허균은 이전의 문인들이 보여준 평탄한 문풍에 반기를 들고 자신이 추구하는 문장의 모범을 직접 실현하려고 새로운 문풍의 창작에 힘을 기울였다.⁵³⁾

史記·文選·李杜韓歐文集·四六通鑑等書於燕市而來，以騾馱送于府校，校儒辭以不與議，不佞就湖上別墅，空一閣藏之。邑諸生若要借讀，就讀訖還藏之，如公擇山房故事，庶以成柳侯興學養才之意。俾衿裾鉛塹之士，比踵林立，如古昔盛時，則不佞與有其功，不亦幸歟。”

53) 김풍기(『조선 중기 고문의 소품문적 성향과 허균의 척독』, 『민족문화연구』 3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393~418쪽)는 허균이 원평도 등 문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품체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간결함 속의 覈實 추구, 서정성과 일상성의 조화, 생동감 넘치는 구어체의 수용과 웃음의 활용, 벼를 통한 사회적 관계의 새로운 정립 등 측면에서 허균 척독의 서술 특징과 의미를 논의하였다.

허균은 당시 문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척독에 관심을 가지면서 명나라 여러 사람들의 척독을 모아 『明尺牘』이라는 척독집을 편찬하였다. 일반적으로 척독은 短小하면서도 서정적인 私信을 말하는데, 晩明에 이르러 문인들이 척독을 짓는 풍기가 보편화 되었는데다 점차 修飾보다 意境을 중시하게 되면서 문장 분류의 명칭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⁵⁴⁾

“명나라 제가들의 척독은 가장 좋은 것만을 모아놓았다. 이를테면 룡씨, 황씨, 서씨, 도씨 등에 의해 창작된 척독은 모두 널리 수집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 글들을 보면 마치 병기 창고에 창이며 투구, 갑옷 등이 삼엄하게 벌여 있는 듯하고 보물 창고에 대패 목난이 진열되어 있는 듯하며 거대한 파도가 치솟는 모습과 같으니 참으로 장관이다. 유독 유감스러운 것은 단사 척언으로 이치의 근원을 곧바로 깨뜨리고 인의를 折伏하여 뜻이 말 밖에 있도록 한 것으로, 고척독에 비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⁵⁵⁾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허균의 明尺牘의 집필 목적은 단사척언으로 이치의 근원을 깨뜨리고 사람의 뜻을 설득하여 뜻이 말 밖에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명척독을 편찬하기 위해 허균은 많은 분량의 척독을 읽었던 것 같다. 허균은 명나라 문인들의 글에 경도되어 당시 하나의 소품 양식으로 굳어진 척독의 문예미를 인식하고 單詞隻言을 취하여⁵⁶⁾ 중국의 척독 관련 서적을 조선에 처음 소개시켰다. 허균이 명나라에서 유행하였던 척독소품을 적극 선호할 수 있었던 것은, 척독소품이 주자학적 사유체

54) 김성진, 『조선후기 소품체 산문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74쪽.

55) 허균, 『惺所覆韻稿』卷13, 『明尺牘跋』, “我明諸家尺牘, 最好而彙之者, 如凌氏黃氏屠氏徐氏, 皆博訪而搜極之, 裒爲大編. 覽之如入武庫, 矛戟鎧甲, 森然而環列, 如寶肆陳大貝木難, 如巨浸稽天然, 信偉觀矣. 獨恨其單詞隻言, 直破理而折伏人意, 在於言外者, 比古尺牘稍沮一塵. (하략)”

56) 허균, 『惺所覆韻稿』卷13, 『明尺牘跋』, “(상략) 余暇日, 塵發諸所彙, 取其單詞隻言, 足配於古人者, 別爲一書, 分爲四卷, 名曰明尺牘.”

계에 기본을 둔 문학과는 상당히 다른 새로운 문학으로서 유교적 질서를 거부하였던 자신의 문학적 성향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척독이 조선에 전파된 이래, 이와 같은 새로운 글짓기 문체에 대한 관심은 조선후기 문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산문사에서 고문으로 고착되어 있던 書 양식을 확장시켜 尺牘을 문예적인 글쓰기와 연결시키면서 하나의 새로운 문학갈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허균의 영향을 받아 조선시대 산문문체의 중심인 고문에 싫증을 느낀 문인들은 새로운 문체인 소품문을 선호하였는데, 당시 小品文을 즐겨 창작하던 조선후기 문인들은 척독선집을 간행하여 당대 문단에 널리 보급시켰다. 특히 조선후기 소품문은 고문의 격식을 벗어나 새로운 문장을 구사하였는데, 이 시기 소품작가들은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고문의 기본적인 형식을 대체로 유지하되 글쓰기를 현저하게 바꾸었다.⁵⁷⁾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인 書簡文이 지니는 실용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문예적인 산문으로 탈바꿈하면서 편지글을 창작하는 것 자체를 문학 행위로 인식하였던 풍조와 관련된다.

허균이 중국으로부터 입수한 서적은 조선 문인의 讀書行態에도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 과거응시에 필요한 서적과 시문의 창작을 위한 전범적 텍스트, 그리고 학문적 필요로 성리학에 관계된 서적을 골똘히 파고드는 것이 문인 지식인들의 일반적인 독서행태였다.⁵⁸⁾ 본고는 허균이 『소창청기』를 조선에 입수한 이래, 조선 문단에서 어떻게 전파되고 수용되었는지 그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창청기』는 오종선이 지은 淸言集으로서 독자들에게 읽을거리로서 흥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처세와 수

57)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한국한문학회연구』 28, 한국한문학회, 2001, 95~121쪽.

58) 강명관, 같은 책, 1996, 186쪽.

양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허균이 중국 서적을 다량 입수한 사실을 계기로 조선 문인의 학문적인 경향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허균은 과거공부나 문장을 쓰는 데 필요한 전거로 활용하기 위한 조선전기 문인들의 多讀 경향에서 벗어나, 자신이 처한 문단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허균은 중국의 서적을 수입하고 있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를 수용하여 여러 서적에서 뽑아낸 자료를 일정한 편집 기준 아래 『한정록』이라는 書名으로 재구성하였다. 허균은 이미 1606년에 주지번에게서 선물로 받은 『棲逸傳』, 『玉壺水』, 『臥遊錄』의 영향을 받아 한정과 관련된 조목을 “隱遁, 閑寂, 退休, 淸事” 4개 유문으로 나누어 1610년 『한정록』 초간본을 편집하였다. 그 후 1614년, 1615년 중국 사행 시기 4천여권에 달하는 책을 구입하면서 이미 편집했던 초간본에 『世說新語補』 등 서적을 참조하여 1618년에 16유문으로 정리된 『한정록』을 재편집하여 간행한다. 재간본 『한정록』에는 중국에서 1613년에 간행되어 인기를 얻고 있었던 『소창청기』를 103칙 인용하였는데, 허균이 새롭게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독특한 안목으로 기존의 글을 가려뽑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문학적 성과가 있다.

『소창청기』는 허균에 의해 조선에서 수용된 이래 허균과 동시대를 살았던 신희도 『소창청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청언집에 수록하였다. 당대 조선 문인이 독서와 저술, 출판을 통해서 상호간의 학술과 문학을 교류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신희이 허균을 통해서 『소창청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희이 자신의 문집에 어떠한 책을 소장하고 읽었는가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그가 어떠한 경로로 『소창청기』를 비롯한 명대 문학을 접속하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지만 허균의 『한정록』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적지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신흠이 편찬하였던 『野言』은 전인의 글 가운데 마음에 부합되는 부분을 취하여 자신의 뜻을 곁들인 것으로, 그중 卷之一은 淸言을 선록한 내용인데 허균의 『한정록』과 더불어 17세기 조선 지식인의 중국 淸言 수용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은 허균의 중국 서적 입수가 조선 문단에 일으킨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허균이 중국에서 입수한 서적을 토대로 『한정록』이 편찬되었고, 『한정록』의 영향을 받아 청언집 『野言』이 간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흠의 청언 선록집 『野言』에 수록된 내용과 허균의 청언집 『한정록』의 내용을 대조해보면, 아언 卷1의 전체 52칙 가운데 도합 26칙이 『한정록』과 일치⁵⁹⁾하다. 이러한 사실은 허균이 『한정록』에 인용서목으로 밝힌 『소창정기』문헌을 신흠이 직접 열람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는데, 신흠은 『한정록』의 영향을 받고 일부를 선록하여 『아언』으로 편찬하였던 것 같다. 신흠이 편찬했던 『아언』은 여러 이본으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당대 목판으로 판각되어 널리 유통되었다. 목판본의 존재는 이 책이 대량으로 소비되었음을 뒷받침하는데, 허균의 『한정록』만큼 조선의 문인들 사이에 활발하게 유행하며 영향력이 컸던 책으로 짐작된다. 이는 조선조의 문예 공간에서 허균의 『한정록』을 둘러싼 문인의 수용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허균의 청언집을 다양하게 독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학 지식을 창출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4. 나오는 말

본고는 허균의 중국 서적 입수 배경과 경위 및 한중 지식인의 평가에

59) 김은정, 「신흠의 청언 선록집 아언 연구」, 『국문학연구』 22권, 국문학회, 2010, 50쪽.

대해 살피고 허균의 중국 서적 수입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논의를 통해 허균이 사신 및 원접사 활동 그리고 역관들을 통하여 중국 문인들과 교류하는 과정에 중국의 다양한 서적들을 입수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한중 양국의 지식인들이 허균의 서적 유통 행위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음을 살펴보았다. 조선의 문인들이 전통적인 유교사관에 입각하여 난설헌의 작품을 異國에 유통시키기 위해 객관성을 상실하면서 편찬했던 허균의 선록기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반면, 중국의 문인들은 개방적인 시선으로 한중 양국의 서적 유통에 일으킨 허균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였는데, 허균의 중국 서적 입수는 한중문학교류사에서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우선, 중국의 서적이 허균의 문학 사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허균은 중국의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중국 서적을 입수하였는데, 한 문인이나 한 유파의 문학론만을 일방적으로 추종한 것이 아니라 명대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593년 『학산초담』 편찬 시기에는 전후칠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다가 1606년 주지번과의 만남을 계기로 왕세정을 비롯한 전후칠자에 상당히 경도되어 있었으며, 1614년 천추사행을 계기로 이탁을 비롯한 양명 좌파에 경도되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으로 허균이 입수한 중국 서적이 조선 문단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도서관이라는 공공시설이 없었던 시기 당대 문인들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湖墅藏書閣을 설치하였던 허균의 활동이 조선후기 장서문화 형성에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점과, 허균에 의해 소개된 중국의 책독소품이 조선후기 고문이라는 산문 양식을 해체하면서 하나의 문예적인 글쓰기 방법으로 등장하였던 점, 중국에서 입수한 서적을 기반으로 편찬한 허균의 『한정록』이 신희의 청언집 『야언』에 일으켰던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총적으로 허균은 중국 서적을 열심히 탐독하면서 한 문학유과에만 얽매이지 않고 독창적인 문학을 추구하였으며, 중국 서적의 영향을 받아 개성을 중시하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갔던 선각자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향후 연구과제는 허균에 의해 중국에 전해진 조선의 시문집들이 중국의 문단에 일으킨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방면의 연구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蔡美花·趙季 主編, 『韓國詩話全篇校注』, 人民文學出版社, 2012年.
- 김중청, 『苟全先生文集』, 국회도서관 소장본.
- 신 흠, 『상촌집』, 한국문집총간 71, 민족문화추진회.
- 최강현 역, 『국역 을병조친록』, 국립중앙도서관, 2005년.
- 허 균, 『성소부부고』, 민족문화추진회, 1982년.
- 강명관, 「조선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민족문화사연구』 9, 민족문화사학회, 1996, 171~194쪽.
- _____, 「허균과 명대문학」, 『민족문화사연구』 13, 민족문화사학회, 1998, 207~235쪽.
- 김성진, 「조선후기 소품체 산문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179쪽.
- 김은정, 「신흠의 청언 선록집 야언 연구」, 『국문학연구』 22권, 국문학회, 2010, 45~74쪽.
- 김풍기, 「조선 중기 고문의 소품문적 성향과 허균의 척독」, 『민족문화연구』 35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 393~418쪽.
- 김홍대, 「주지번의 병오사행과 그의 서화 연구」, 『은지논총』 11권, 은지학회, 2001, 257~304쪽.
- 노경희, 「허균의 중국 문단과의 접촉과 시선집 편찬 연구」, 『한국한시연구』 14권, 한국한시학회, 2006, 267~302쪽.
- 박현규, 「친추 사행시기 허균의 문헌관련 활동」, 『동방학지』 134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6, 261~285쪽.
- _____, 「허균이 도입한 李贄 저서」, 『중국어문학』 46권, 영남중국어문학회, 2005, 303~322쪽.
- _____, 「북경에서의 허균의 족적 고찰」, 『동방한문학』 53권, 동방한문학회, 2012, 83~107쪽.
- 안나미, 「17세기 초 공안과 문인과 조선 문인의 교류 - 구단과 허균, 이정귀의 관련 양상」, 『한문학보』 20권, 우리한문학회, 2009, 419~453쪽.
- 안대회, 「조선후기 소품문의 성행과 글쓰기의 변모」, 『한국한문학연구』 28, 한국한문학회, 2001, 95~121쪽.
-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7, 1~350쪽.

- 이종호, 「허균 문예사상의 좌파양명학 성향(1)」, 『한국사상과 문화』 11,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45~83쪽.
- , 「허균 문예사상의 좌파양명학 성향(2)」, 『한국사상과 문화』 1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33~65쪽.
- 정길수, 「허균 문학론의 모순과 일관 - 왕세정 혹은 의고문파 문학론과의 연관」, 『한국한문학회연구』 51권, 한국한문학회, 2013, 267~300쪽.
- 정주동, 『古代小說論』, 형설출판사, 1978, 1~376쪽.
- 진해중, 『한중관계사연구』, 일조각, 1970, 1~268쪽.
- 허경진, 「녹과잡기를 통해 본 강남서적의 유입과 그 영향」, 『중국학논총』 29, 한국중국문화학회, 2010, 107~127쪽.

ABSTRACT

The Collection of Chinese Books by Xuyun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Guo, Mei-shan

This paper emphasizes the study on the background, the way and the significance of the collection of Chinese books by Xuyun. The background of the collection is Korean officials' love of Chinese books and the active Korean tribute to China at that time. The ways of collection can be described as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rst, the collection from the Chinese envoy; second, the collection during the visiting in China; third, the collection from the translators and exiled scholars. These book sinfluenced not only Xuyun's literary thoughts but also Korean literature at that time. During the reading, Xuyun not only focused on some certain literature school, but tried to purse the creative literary viewpoint. Because of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books, Xuyun's works value the personalities: follow the demand of the development of era. He shows the characters of a prophet in Korean literature.

Key Words Xuyun, Chinese books, Yan Xing, literature thoughts, Korean literary circle

논문투고일 : 2015. 10. 1
심사완료일 : 2015. 11. 30
게재확정일 : 2015. 12. 8